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둘 아니게 사랑하면 너·나 따로 없어요

15면에서 계속

무리 했어도 공덕이 없노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뒀으니까 그 마음대로죠. 마음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분이 커질 수도 없고 또 작게 될 수도 없죠. 우리가 자유권을 얻는다면 때로는 작게도 되고 때로는 크게도 되고 때로는 길게도 되고 때로는 짧게도 되고 중글게도 되고 모든 나고 이렇게 할 줄 알텐데 말이죠.

'스스로 길잡이 나온다'는 뜻은

문: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형제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도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큰스님 말씀중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스스로 길잡이가 나온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말없이 질문하고 말없이 대답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래요. 말없이 질문하고 말없이 대답을 하게 되죠. 말한 놈도 그놈이고 대답하는 놈도 그놈인 까닭이죠.

'목마르면 냉수 마신다' 의미

문: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스님과 한암스님 대담중에서 한암스님께서 "마음을 보았느냐" 했을때 스님 대답이 "목마르실테네 냉수 한사발 드십시오."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젓지 않는 청수를 말하신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답: 그건 이렇게 말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이치가 있죠. 꼭 알아보세요.

못도 지남철이 되는 이유

문: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못이 지남철에 붙으면 못도 지남철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 그것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못이 지남철에 붙으면 그 자식의 힘이 느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생활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그냥 저절로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이 저절로 되구요,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이 금방 되지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없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있는 것을 항상 돌아보게 굴리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밀지못해 병원 다녀왔어요

문: 저는 공부하면서 겪은 제 체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네를 봤습니다. 그네가 너무 높이 올라갔는지 말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려고 힘을 딱 썼는데 이상하게 미끄러지면서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자리 밑에는 돌무덤이었는데 인제 머리가 박살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편 사람 허벅지에 가서 부딪히고 엉덩이는 먹고 남은 음식 수병 걸레에 가서 떨어져서 머리에 약간의 흙만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 았을거라고 했는데 저는 별떡 일어나가지고 부딪힌 사람한테 미안하다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집에서도 병원에 가서 X-Ray 찍으라고 하는 걸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지럽증 증세가 자주

나타나길래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속에서 대답하기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그때 병원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이 '아하 아직도 이게 덜 떨어졌거니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담이 있었습디다. 감사합니다.

답: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믿으면 안 되죠. 마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으라는 거죠.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너무 마음이 많아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요것 뿐이다 이럴 수도 없고 이것 뿐이다 이럴 수도 없고 태산같다 이럴 수도 없구요

아님이 없다고 한 그 까닭이 뭐냐. 자기 아님이 없다는 것! 그것은 왜하면 때에 따라서는 전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만 인도한 게 아니라 벌레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벌레 하나도 마음이 들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화가 되고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이렇게 거꾸꾸꾸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람이 돼서 인태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세 번을 태어나야 중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나면서 삼생을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서 살다 보면 그때는 건너 될 수도 있죠. 십이인연법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고 팔정도도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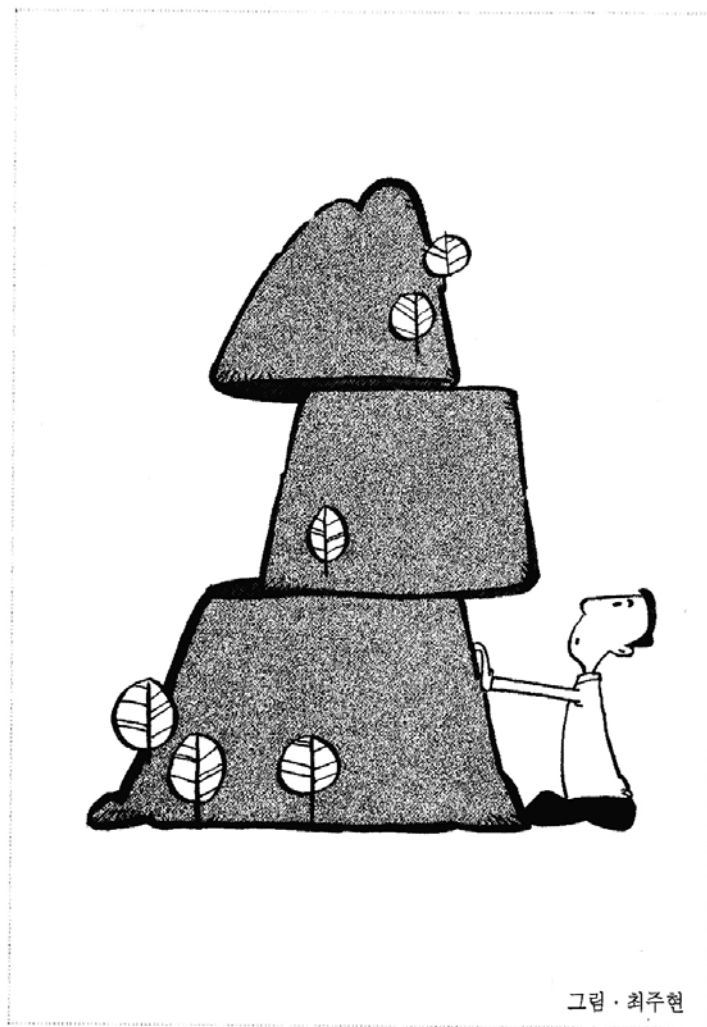
집착에서 생기는게 고통 그 집착만 딱 떼어놓으면 육근·육진이 그냥 떨어져요

문: 마음이 어떻게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죠.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요. 때에 따라서 보고 듣고 적음이 돼야 마음이 생기는 거지 떨어놓고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 지금도 말하는 사이없이 말을 했고 여지껏 말을 해온것도 사실은 말하는 사이가 없었습니다. 허허허...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딱 한군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죠. 사성제도 그렇죠. 그 고통이라는 게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이거든요. 그 집착만 딱 떼어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육근이다 육진이 다 하는 것도 그렇구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뜬이 아주 잘 들면 밥이 맛있죠. 뜬이 안들면은 고실고실한 것이 생쌀 싹하는 거와 같고 그렇듯이 사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침착하게 살라, 빨리 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니 침착하게 뛰어라, 비가



그림·최주현

항상 진화하니 세상에 나 아닌게 없어 무엇을 받으려 말고 무조건 주려고 해야

문: 나와서 가르치신 게 헛 가리킨 거죠. 배우는 사람도 헛 배운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본다면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나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태어나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태어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다 나중 태어났다 할 필요가 없는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나 미래를 현실에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찰나에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살던 찰라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도 있는가 하면 그러기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죄가 있어서 못살겠네. 무슨 죄를 얼마나 짓길래 이렇게 에타게 고통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모습이 변하기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에서부터 모두 자기

와도 침착하게 걸어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습을 두고 말한 거지 될 때는 진짜 뛰어라 이겁니다. 한 찰나에 뛰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몸통이 뛰느냐 이거죠. 몸통이 뛰는 건 침착하게 가고 마음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리저리 내가 몸통이 열 개가 돼서 나가도 그건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 즉 말하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거부하는 마음이 없이 수긍시킬 수 있죠. 모두 그 정도는 집착하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를 일일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다 하는 거죠.

문: 절에서 때로는 침을 놓고 또 때로는 관상을 보고 하시는 모양인데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절에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해주는 사람도 모르고 서로가 몰라서 고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문: 지도 산에 다니면서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알고 나서는 또 실천을 해봤죠. 예를 들면 돌이나 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 하기도 서로 서로 응답

이 오고 가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영가들을 만나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 사람이 누구냐가 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가고 오면서도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엔 그것을 내 눈앞에서 꼭 봐야만 속이 풀렸거든요. 그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봐야만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남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모자란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문: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와 나밖엔 없을 게 아닌가. 그런데 나도 못믿으니까 나는 없는 것이더라는 얘기도. 육신은 참 자기가 하자는 대로 심부를 하는 것 뿐이지 육체가 자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구스님네들이 비구니라고 해서 업신여길 때 그건 마음에서 벌써 다 알게 돼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

미워하거나 해서는 되지 않을 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있으면 없는대로 적으면 적으면대로 크면 큰대로 똑같이 돼주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내가 더 큰데 왜 나를 작게 보냐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왜냐. 그 사람보다도 작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더 작게 될 때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말예요.

문: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논의할 것도 없고 여자 남자를 따지는 것도 논의 할 것도 없어요. 수없이 찰나찰나 바뀌니까요. 때로는 그 사람만도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다 아니다 내가 크다 작다 할 것도 없죠. 그 래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사람 넘겨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구요. 들을려고 애 쓸 필요도 없구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작아지지 자유스럽게 할 수 없거든요.

문: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바뀌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말입니다. 아버지 보다 아들이 못하다 이래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은 사람도 있고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나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천차만별이니까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지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누가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한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줄려고만 생각한다면 된다 이런 얘기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둘 아니게 보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냉철할 수 있는 마음. 정돈할 수 있는 마음. 그저 항상 둘 아니게 사랑할 수 있다면 너나 따로 없었죠. 그걸 일부러 생각을 내서 할려면 그것도 안되죠. 천성이 그렇게 되듯 돼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물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게 돼있어요. 허공에 있는 중생들도 다 보게 돼있어요. 다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거지만 통신이라기 보다는 그냥 가깝게 이렇게 풀이하게 될 수가 있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죠. 깨우쳤다 나는 못깨우쳤다 이럴 필요도 없구요.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문: 지금 여기는 상세계와 하세계를 잇는 교차로입니다. 이 중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상세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세계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또 올라오는 놈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연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거죠. 인간되기 이전에도 수천 번을 자기 모습을 벗지 못하다가 인간으로 화할때는 한 찰나에 화하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수없이 죽고 수없이 피를 토하고 그러다가 인연따라서 그 마음이 아주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환생이 되는 거거든요.

문: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그저 나쁘게 살려고 애쓰지도 말고 좋게 살려고 애쓰지도 말고 스스로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어 간다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지금 말 한 것은 정말요 다음생애라도 그렇고요. 다음다들 생애라도 그렇고 모두 여러분이 '참 그때에 그 모습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분 고마워' 또는 한구석 더 넘어가면 '아 그때 그분이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계시구나.' 하겠죠. 지금 자기가 걸어가면서 '아 이게 지금 그분이 걸어가고 있네.' 이렇기도 하구요.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이구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고 서로 찰나 찰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찰나찰나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죠. 하나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아프지 않게 살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문: 아까도 불국토 얘기를 했지만 불국토에서 그대로 여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도윤회를 들고 돌면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벗어나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성불함이 없이 성불합시다.

※ 위 법문은 1999년 7월 4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 한마음선원 신도회

가까운 인연을 맺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o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이시아문